

2022년 4/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2. 9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2. 9. 1 ~ 9. 23(휴일제외 15일 간)
- 분석대상 : 144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40	104	29	115		
비중	27.8	72.2	20.1	79.9		
업종별(완성품 기준)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철강·금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매수	28	27	42	23	13	11
비중	19.4	18.8	29.2	16.0	9.0	7.6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요약

● 2022년 4분기 전망BSI '62.5', 2분기 실적BSI '83.3'

- 수익성 악화(원자재·인건비 상승, 조달여건 악화) 요인이 상존한데 이어, 3고(금리·환율·물가)악재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기업경기 부정적 전망
- 항목별 전망BSI, 매출액(88.2), 영업이익(81.3), 설비투자(84.0), 공급망 안정성(88.2), 사업장 공장가동(89.6) 등 전 부문 기준치 하회
- 코로나19 이후,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매출·생산량 빠른 회복 보였으나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은 이마저도 약화한 모습
- 업종별 전망BSI, 철강금속(104.3), 기타제조업(123.1)을 제외한 자동차부품(81.5), 기계(73.8), 기타운송장비(72.7), 전기전자(67.9) 등 대부분의 업종서 기준치 하회
- 규모별 전망BSI, 중소기업(78.8)이 대·중견기업(95.0)에 비해 더욱 부정적 형태별 전망BSI, 수출기업(69.0)이 내수기업(87.0)에 비해 더욱 부정적

● 2022년 경제성장율, 응답업체의 86.1% '2.5% 미만' 전망

- 기업현장에서의 예상치(정부 전망치 2.6%),
'1.5% 미만' 31.3%, '1.5% 이상 2.0% 미만' 32.6%, '2.0% 이상 2.5% 미만' 22.2%, '2.5% 이상 3.0% 미만' 9.7%, '3.0% 이상' 4.2% 응답

● 응답업체 58.3%, '올해 실적 목표치 미달할 것'

- 연초 계획한 실적(영업이익) 목표치 달성여부 전망
'목표치에 미달할 것' 58.3%, '목표치에 달성 또는 근접' 36.1%,
'목표치 초과할 것' 5.6%
- '목표치에 미달할 것' 응답, 중소기업(63.5%)과 수출기업(65.5%)이
대·중견기업(45.0%)과 내수기업(56.5%) 대비 높은 비중

● **원가상승, 금리인상, 환율 변동성이 올해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

- 올해 경영실적 전망에 영향 미치는 리스크,
원가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29.4%), 금리인상 기조(18.1%), 환율 및 대외
경제지표 변동성 심화(16.6%), 미·중 갈등 등 공급망 리스크(11.3%), 주요국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부진(8.4%),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7.0%),
대출기한 만료 등 자금조달(5.5%), 기업 부담법안 등 정책리스크(3.6%) 순
- ‘원가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에 이어
규모별로 대·중견기업과 수출기업은 ‘환율 등 대외 경제지표 변동성 심화’를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금리인상 기조’를 가장 많이 꼽아

● **중소기업, 은행·정부지원으로 자금조달... 목적은 고정비용 지출**

- 자금조달 방법, 은행·증권사 차입(53.6%), 내부 유보자금(22.6%), 정부지원
금(13.7%), 사금융 차입(13.7%), 주식·채권 발행(6.5%) 순
- 중소기업, 은행·증권사 차입(56.1%), 정부지원금(17.9%)
대·중견기업, 내부유보자금(35.6%) 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 자금조달 목적,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47.5%), 설비투자 및 사업확장
(37.6%), 채무상환(13.5%) 순
- 대·중견기업, 상대적으로 설비투자 및 사업확장(48.7%) 비중 높고
중소기업,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52.0%)에 높은 비중
- 실제 창원 중소기업 대출 총액은 22조 7,092억 원(2022년 6월 기준)으로 전
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가운데, 운전자금 대출은 12.7%로 가파른 증가

● **응답업체 40.3%, ‘자금사정 어렵다’**

- 자금사정, 응답업체의 ‘어렵다’(34.7%), ‘매우 어렵다’(5.6%), ‘보통이
다’(37.5%), ‘양호하다’(18.1%), ‘매우 양호하다’(4.2%)
- ‘자금사정 어렵다’는 응답비중은 중소기업 46.2%, 대·중견기업 25.0%
-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유, 매출부진으로 현금흐름 제한(35.4%), 생산비용 상
승으로 유보자금 부족(32.3%),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부담 과다(26.6%), 보
유자산 대비 대출한도 초과(4.7%), 대출금 연체 및 신용등급 하락(1.0%) 순
- 대·중견기업, 생산비용 상승으로 유보자금 부족(42.9%)
- 중소기업, 매출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제한(36.0%)과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부
담 과다(28.0%)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Ⅲ

2022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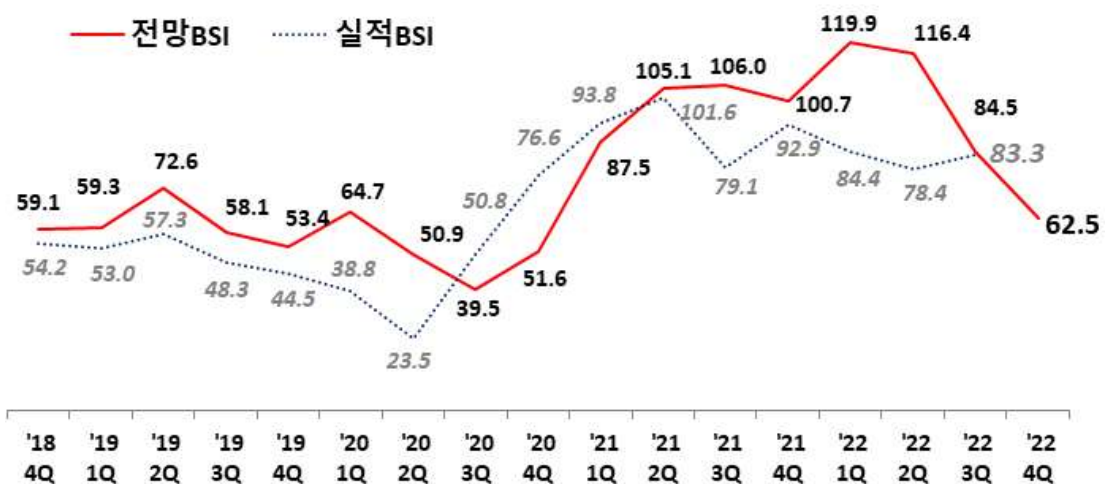
1. 창원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창원지역 2022년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 지수)가 '62.5'(기준치 100)으로 조사되어 지난 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음.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인 원자재가격, 인건비 등의 생산비 증가와 더불어 원화가치 하락,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욱 커진데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우려도 높아지면서 4분기 전망 BSI가 기준치를 크게 하회했음.

○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도 기준치를 밑돈 '83.3'로 조사되었음. 코로나19 이후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매출과 생산량은 견조한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3분기부터는 이마저도 악화된 모습임.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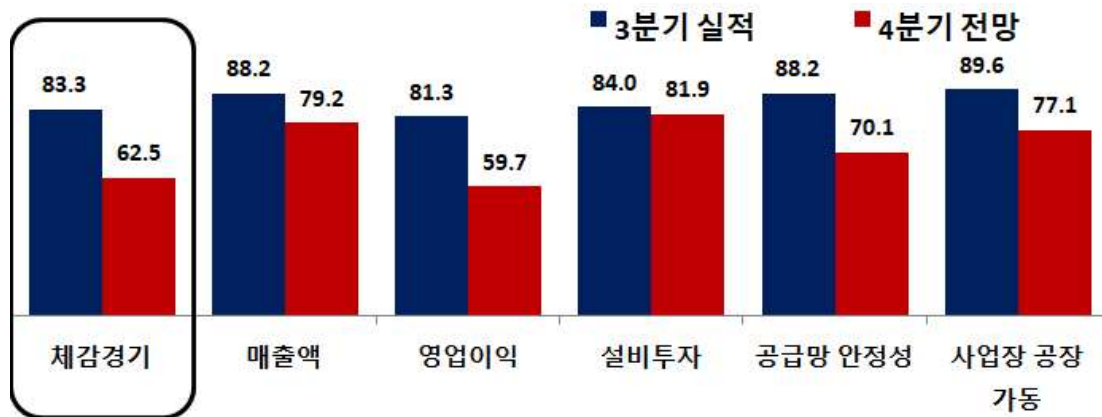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2년 4분기 항목별 전망BSI는 매출액(79.2), 영업이익(59.7), 설비투자(81.9), 공급망 안정성(70.1), 사업장 공장 가동(77.1)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 2022년 3분기 항목별 실적BSI의 경우 매출액(88.2), 영업이익(81.3), 설비투자(84.0), 공급망 안정성(88.2), 사업장 공장가동(89.6) 등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지난 2분기부터 본격화된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악재의 영향이 3분기에 더욱 커진데다,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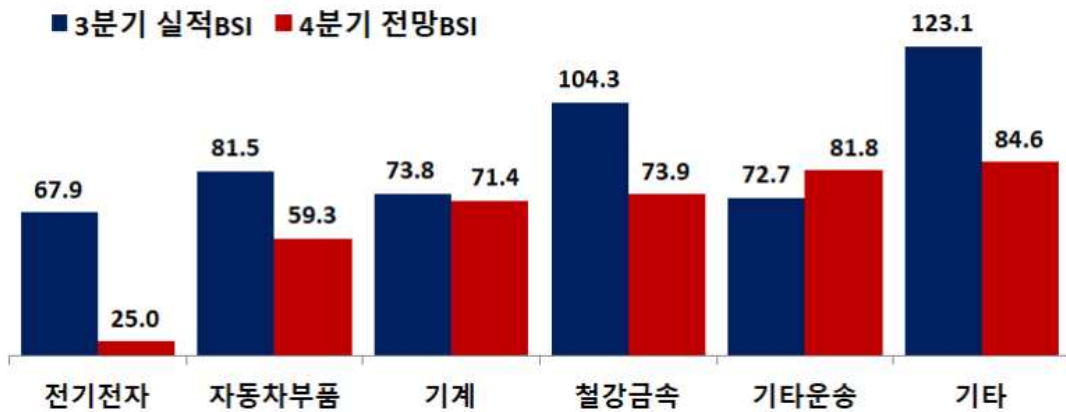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3. 업종별·기업형태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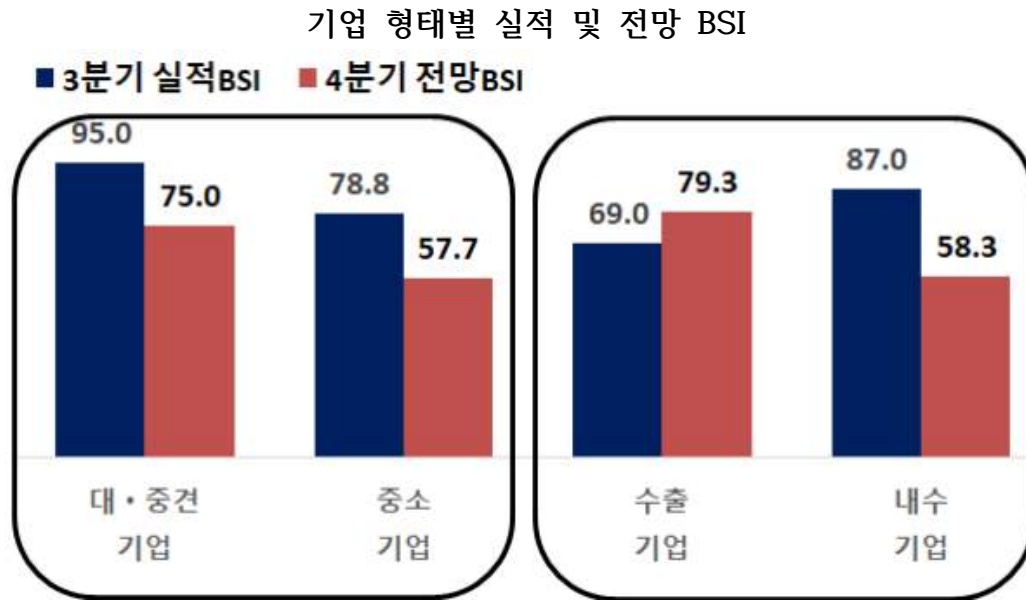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업종별 전망BSI는 기타운송장비(81.8), 철강금속(73.9), 기계(71.4), 자동차부품(59.3), 전기전자(25.0) 등 전 업종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 2022년 3분기 업종별 실적BSI는 철강금속(104.3), 기타제조업(123.1)을 제외한 자동차부품(81.5), 기계(73.8), 기타운송장비(72.7), 전기전자(67.9) 등 대부분 업종에서 기준치(100)를 하회했음.
- 전기전자 제조업의 경우 국내외 소비심리 악화와 계절적 요인이 함께 겹치면서 3분기 실적BSI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부정적 전망은 4분기도 이어지고 있음.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 창원 제조업의 규모별·매출형태별 전망을 보면, 대·중견기업군(75.0)과 중소기업(57.7), 수출위주기업(79.3), 내수위주기업(58.3) 등 모든 기업군에서 4분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

- 규모별·매출형태별 3분기 실적BSI도 대·중견기업군(95.0)과 중소기업(78.8), 수출위주기업(69.0), 내수위주기업(87.0) 등 모든 기업군의 전망 BSI도 기준치를 하회했음.



-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대 중견기업과 비교해 4분기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형태별로는 내수기업이 수출기업 보다 4분기 체감경기를 더욱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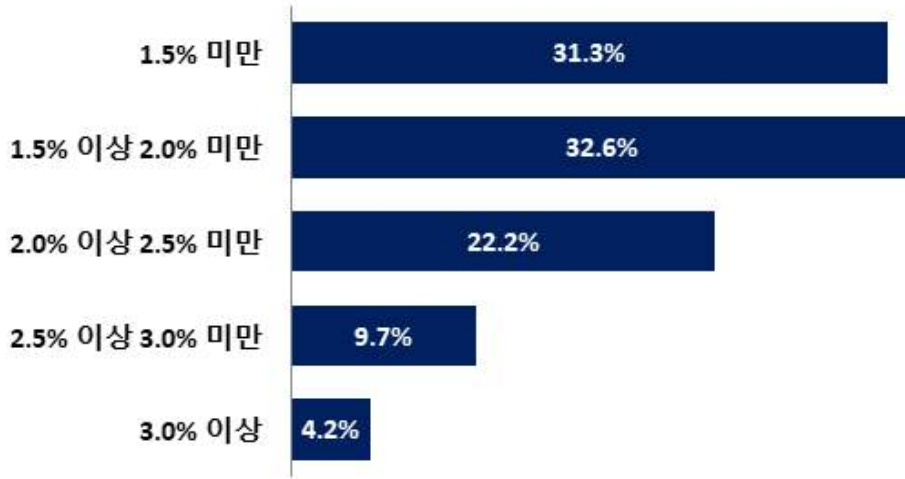
4.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 가운데, 기업현장의 예상치는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32.6%는 ‘1.5% 이상 2.0% 미만’, 31.3%는 ‘1.5% 미만’, 22.2%는 ‘2.0%에서 2.5% 미만’이라고 응답해 전체 86.1%가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나머지 9.7%는 ‘2.5%에서 3.0% 미만’, 4.2%는 ‘3.0% 이상’일 것으로 답했음.

각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기관	성장률
한국정부	2.6%
아시아개발은행(ADB)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
한국은행	2.6%
국제통화기금(IMF)	2.3%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n=144)



5. 2022년 경영 목표치 달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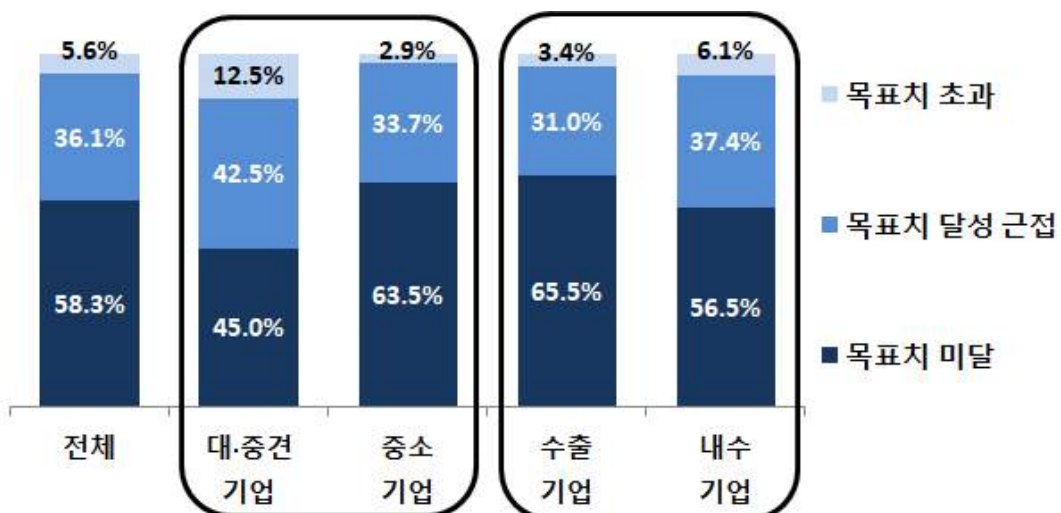
○ 연초 계획한 실적(영업이익) 목표치의 달성여부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58.3%가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라 답했고,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근접할 것’이란 응답은 36.1%,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란 응답은 5.6%에 머물렀음.

○ 응답업체의 과반 수 이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이러한 전망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중소기업 응답의 63.5%가 ‘목표치가 미달할 것’으로 답해, 대·중견기업 45.0%와 비교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란 응답도 대·중견기업은 12.5%로 조사되어, 2.9%에 그친 중소기업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음.

형태별로 보면,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란 응답비중이 수출기업이 65.5%, 내수기업이 56.5%로 높게 나타났음.

2022년 경영목표치 달성 전망 (n=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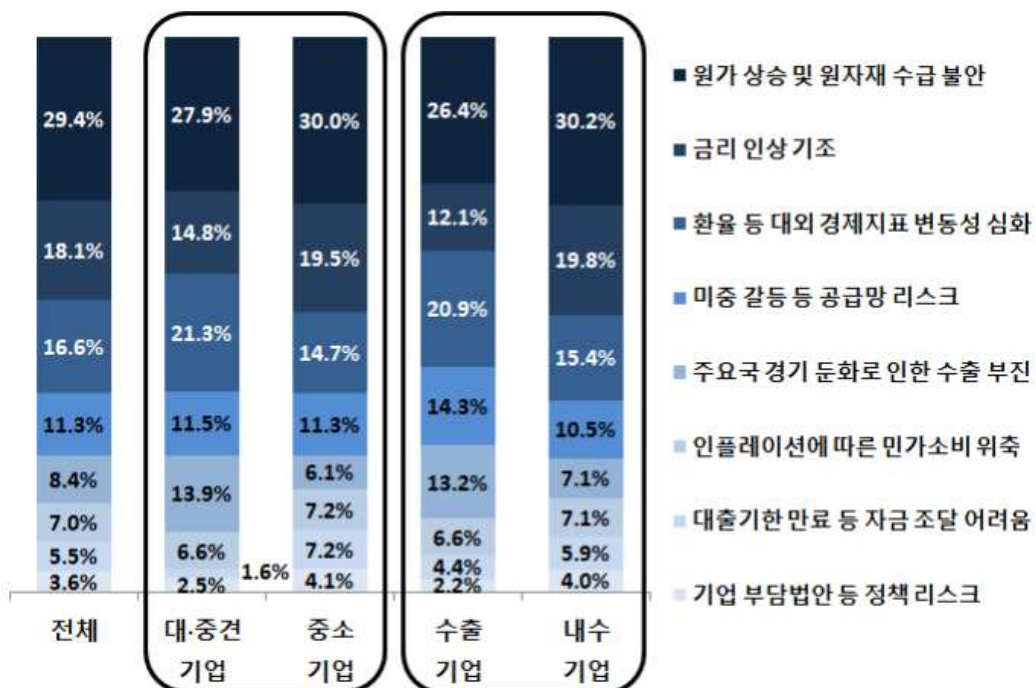


6. 2022년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 올해 경영실적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업체의 29.4%가 '원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을 들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리 인상 기조'(18.1%), '환율 등 대외 경제지표 변동성 심화'(16.6%), '미·중 갈등 등 공급망 리스크'(11.3%), '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부진'(8.4%),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7.0%), '대출기한 만료 등 자금 조달 어려움'(5.5%), '기업 부담법안 등 정책리스크'(3.6%) 순으로 답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과 수출기업은 '원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에 이어 '환율 등 대외 경제지표 변동성 심화'를 각각 21.3%, 20.9%로 들어 뒤를 이었고,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금리 인상 기조'를 각각 19.5%, 19.8%가 응답해 뒤를 이었음.

2022년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리스크(복수응답) (n=144)



IV

자금조달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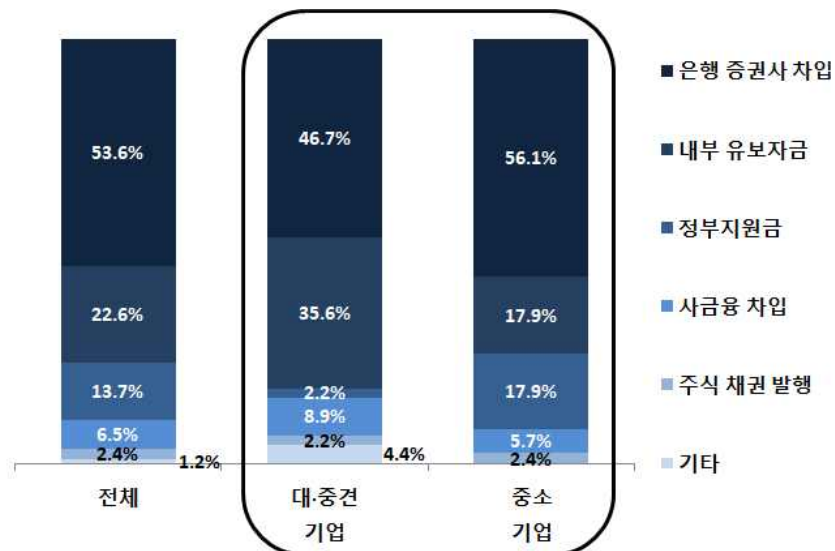
1. 자금조달 수단

○ 국내외 통화 및 재정긴축의 강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가 경영 상 주요 애로로 부각되는 가운데, 창원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수단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53.6%가 ‘은행·증권사 차입’이라고 답했음. 다음으로 ‘내부 유보자금’ 22.6%, ‘정부지원금’ 13.7%, ‘사금융 차입’ 6.5%, ‘주식채권 발행’ 2.4%, ‘기타’ 1.2% 순으로 답했음.

○ 규모별로 ‘은행·증권사 차입’으로 답한 비중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6.7%, 56.1%로 조사되었고, ‘내부 유보자금’으로 답한 비중은 각각 35.6%, 17.9%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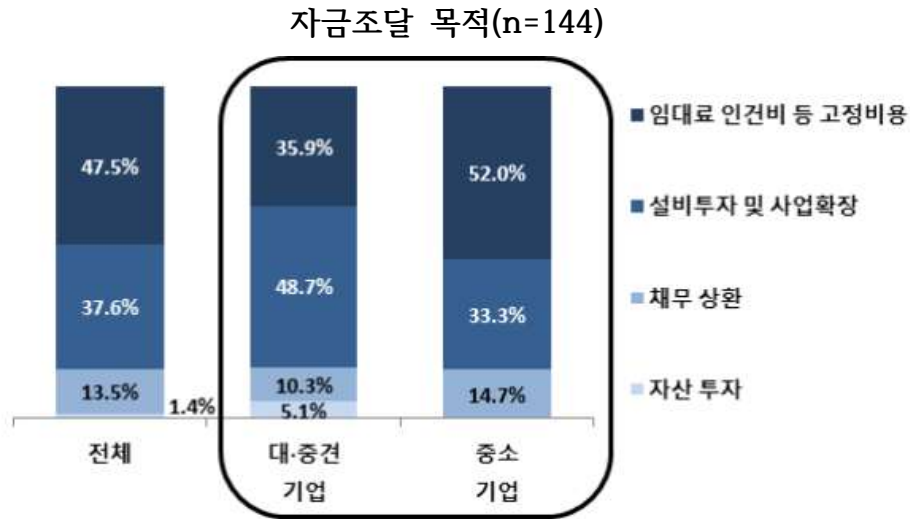
자금조달에 있어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한 차입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 유보자금을 통한 자체 조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n=144)



2. 자금조달 목적

- 신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응답업체의 47.5%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들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비투자 및 사업확장’ 37.6%, ‘채무 상환’ 13.5%, ‘자산 투자’ 1.4% 순으로 답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설비투자 및 사업확장’을 48.7%가 응답해 가장 큰 비중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52.0%가 들어 가장 많았음.
또한 ‘채무상환’으로 답한 비중도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0.3%, 14.7%가 응답해 차이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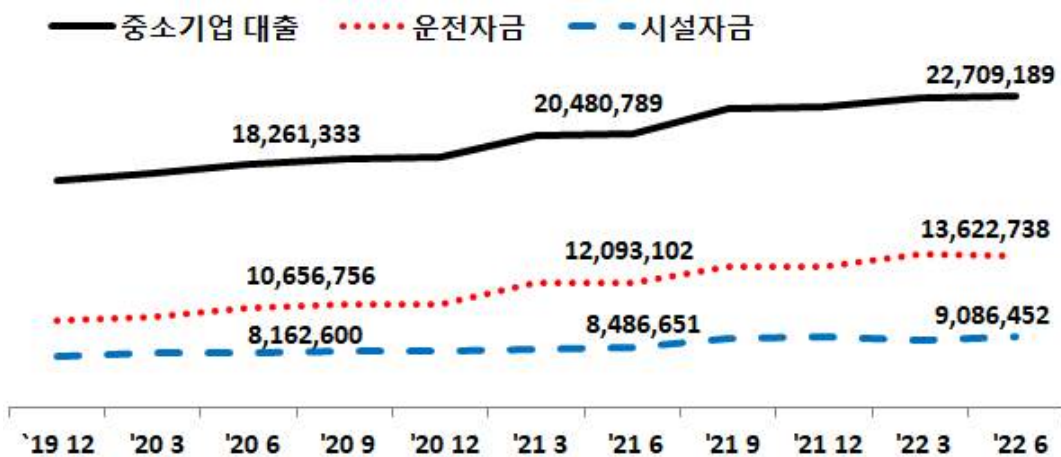


- 실제로 창원지역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22년 6월 기준 22조 7,09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가운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운전자금 목적의 대출은 13조 6,22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했음.

- 전체 중소기업 대출에서 운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월 56.6%에서 2021년 6월 58.8%, 2022년 6월 60.0%로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음. 신규사업이나 설비투자과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대출보다 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출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창원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창원지역 중소기업의 목적별 대출잔액 추이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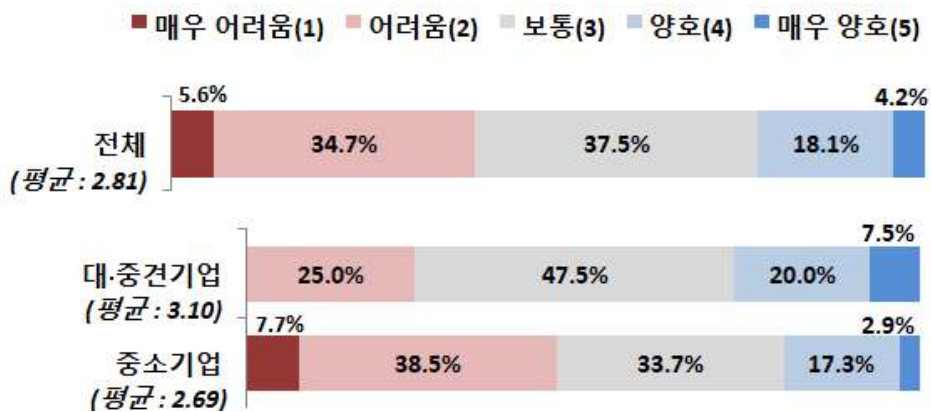
3. 자금사정 진단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목적이 신규 투자 보다는 현상유지를 위한 고정비용 지출에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통화긴축에 의한 고금리 기조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기업의 자금사정을 자체 진단(5점 척도, 매우 어려움~매우 양호)한 결과, 평균 2.81점으로 조사되었음. 응답비중으로 살펴보면, 응답업체의 34.7%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답했고, 5.6%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평균 3.10점으로 조사되었고, 응답비중은 25.0%가 ‘어렵다’고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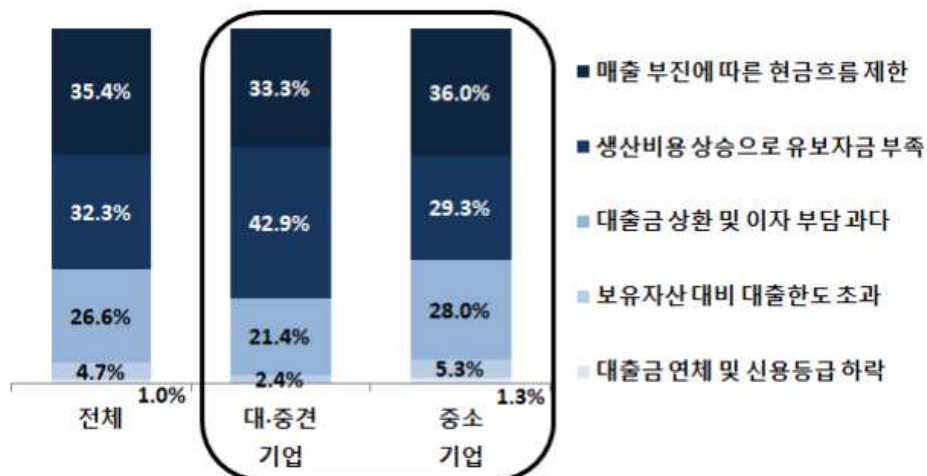
중소기업은 평균 2.69점으로 조사되었음. 응답비중을 살펴보면, 38.5%가 ‘어렵다’고 답했고, 7.7%는 매우 ‘매우 어렵다’고 답해 중소기업 응답업체의 46.2%가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금조달 목적(n=144)



○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제한’과 ‘생산비용 상승으로 유보자금 부족’을 각각 35.4%, 32.3%가 뽑아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부담 과다’ 26.6%, ‘보유자산 대비 대출한도 초과’ 4.7%, ‘대출금 연체 및 신용등급 하락’ 1.0% 순으로 답했음.

자금사정 어려운 이유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유보자금 부족’을 42.9%가 들어 다수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매출 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제한’을 36.0%가 응답해 가장 많았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부담 과다’(28.0%), ‘보유자산 대비 대출한도 초과’(5.3%), ‘대출금 연체 및 신용등급 하락’(1.3%)으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4. 자금운용 상의 주요 리스크

- 자금운용 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을 48.3%가 응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 20.6%, ‘환율 상승으로 외화차입 부담 증가’ 16.7%, ‘정책지원자금 축소’ 11.5%, ‘기타’ 2.9% 순으로 답했음.

- 대출금리 상승에 이어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외화차입 부담 증가’로 응답한 비중이 2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답한 비중이 21.3%로 높게 나타났음.

자금운용 상의 주요 리스크(n=144)

